

제 1 회
이천도예와 제주예술의 만남展

2014. 9. 26 FRI ~ 10. 1 WED

Opening 2014. 9. 26 FRI pm 14:00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
Tel. (064) 722-0203

인사말



제주문화원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이천도예와 제주예술의 만남展’을 개최합니다. 본원이 주관하는 용연선상음악회의 특별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시회는 예술로 두 지역의 문화를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고 뜻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뜻 깊은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 제주를 찾아주신 조명호 이천문화원장님을 비롯하여 이천과 제주 문화원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예가 해주 엄기환 선생님, 서예가 한훤 현병찬 선생님, 글을 써주신 문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도예는 인류가 시작된 이래 자연인 흙과 불의 신비한 조화로 만들어지는 인류최고의 예술이라고 합니다. 흙이 불을 만나 1300도의 고열로 본래의 자신을 없애고 새로운 존재인 도자기로 변화합니다. 선사 이래 인간의 창조물인 도자기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단하나의 예술품입니다. 여기에 사람의 생각을 담은 글과 서예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진 도예작품은 인간이 창조해 낼 수 있는 최고 욕망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태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예정신은 오늘을 사는 인간들에게 큰 암시를 줍니다.

이런 뜻 깊은 행사를 이천문화원과 제주문화원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조명호 이천문화원장님의 지혜와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행사를 시작으로 양 문화원이 여러 분야에서 더 많은 문화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문화원장 **신 상 범**

존경하는 신상범 원장님과 임직원, 그리고 제주문화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억새발 사이로 부는 그윽한 가을바람이 제주의 산천을 어우르는 좋은 계절에, 제주와 이천 양 문화원 간의 의미 있는 첫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감격스럽습니다. 이번 ‘이천도예와 제주예술의 만남展’을 준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작년 문화교류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양 도시가 양질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의 수준 높은 문화를 교류하고 발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첫 번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융복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장점을 살려 협업작업을 시도해 보는 것은 새로운 창조의 과정입니다. 각기 독특한 문화적 경지를 이룩한 제주의 서예문화와 이천 도예문화의 결합은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제주 문인들께서 아름다운 글을 보내주셨고, 이천의 도예가, 해주 엄기환 선생이 준비한 도자기에, 한 굽 현병찬 선생이 붓을 들어 작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쪼록 이번 전시회가 제주와 이천의 문화를 서로 이해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천도예와 제주예술의 만남展’을 위해 애쓰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주와 이천, 양 문화원 교류사업의 힘찬 첫걸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천문화원장 **조명호**

●
김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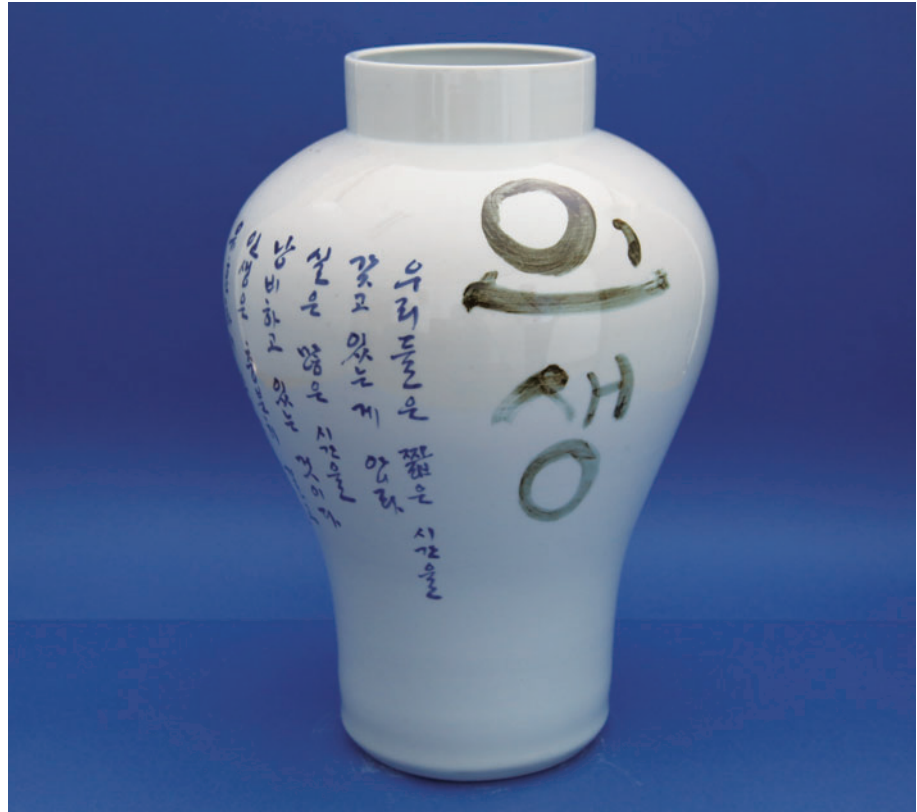
Kim Ga-yeong



인생 | 30×33cm

우리들은 짧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유효하게 쓰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완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어진 게 시간이다. 시간을 유익하게 쓰면 쓸수록 인생은 풍요로워 지는 게 아닐까.

우리들은 짧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고, 유효하게 쓰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완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주어진 게 시간이다. 시간을 유익하게 쓰면 쓸수록 인생은 풍요로워 지는 게 아닐까.



인생 | 48×35cm

●
김 봉 오
Kim Bong-o



사라봉 찬가 | 42x42cm

사라봉은 제주 섬의 가슴인가 보다 그리고 그 산마루에서 있는 등대는 밝은 희망의 숨을 한결같이 내뿜는 심장이다. 제주 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포근히 안아주는 사라봉은 순박하고 고은 마음씨의 연인이다. 거기에는 쪽빛 바닷물에 씻긴 아름다움과 훈훈한 인정으로 닦은 심파가 넘실거린다 짙은 안개로 뒤덮인 철쭉이 밤을 비취주는 등대는 우리들의 삶에서 밝혀지는 방향과 외로움 그리고 갈등을 풀어주는 천사다.



김봉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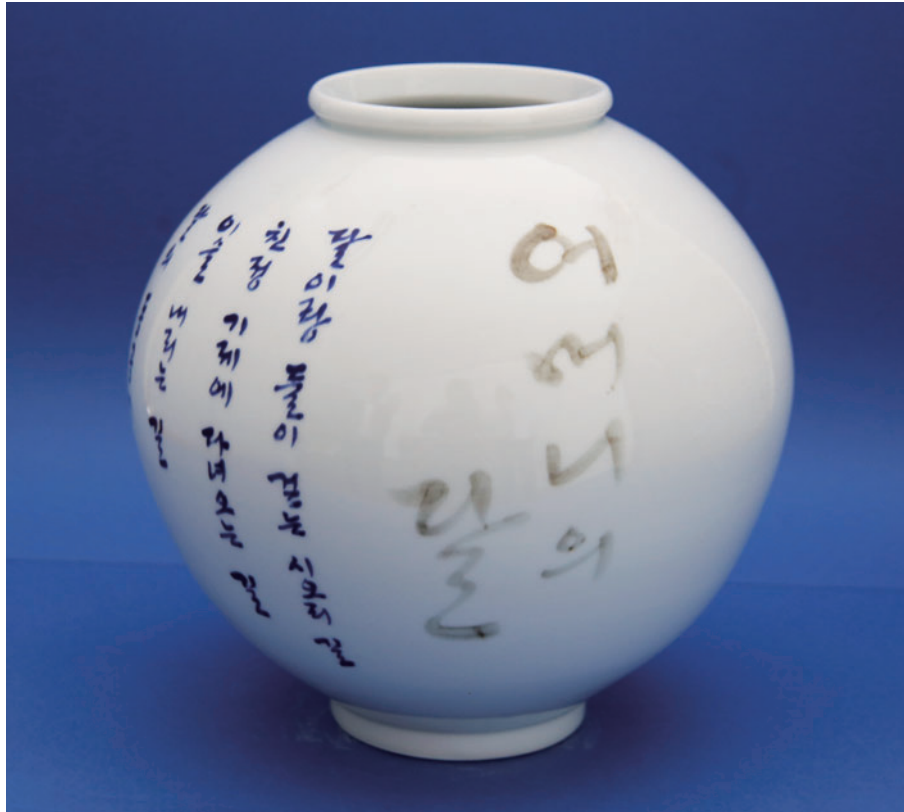
Kim Bong-o

사라봉은 제주 섬의 가슴인가 보다 그리
고 그 산마루에 서 있는 등대는 밝은 희
망의 숨을 한결같이 내뿜는 심장이다.
제주 섬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포근히
안아주는 사라봉은 순박하고 고은 마음
씨의 연인이다.
거기에는 쪽빛 바닷물에 씻긴 아름다움
과 훈훈한 인정으로 닦은 심파가 넘실
거린다 짙은 안개로 뒤덮인 철쭉이 밤
을 비춰주는 등대는 우리들의 삶에서
빛어지는 방향과 외로움 그리고 갈등을
풀어주는 천사다.



사라봉 찬가 | 47×36cm

●
김 성 주
Kim Seong-ju



어머니의 달 | 32×32cm

달이랑 돌이 걷는 시오리 길

친정 기제에 다녀오는 길

이슬 내리는 길

달의 동공에

달맞이꽃잎에

촉촉이 젖는 길

저 홀로 환한 길

西로 가는 길

달이랑 돌이 걷는 시오리 길

친정 기제에 다녀오는 길

이슬 내리는 길

달의 동공에

달맞이꽃잎에

촉촉이 젖는 길

저 홀로 환한 길

西로 가는 길



어머니의 달 | 54×37cm

●
김 순 이
Kim Sun-i



窓 | 28×32cm

나는
날마다
창을 연다

나를 향해 길 떠난
그대 그리움 맞기 위하여

나는
날마다
창을 연다

나를 향해 길 떠난
그대 그리움 맞기 위하여



窓 | 32×32cm

문태길
Mun Tae-gil



이슬 | 45x45cm

저렇게
저렇게
빈 가슴일 수가 있을까

허공
아래서
허공을 수놓다가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가는 소녀의 미소.

동강난
이 세파
한 물결 이루고자

캄캄한
밤하늘
동그랗게 수놓다가

쫓는 해
박자에 맞춰
뚝 멈추는 저 눈물.



문태길

Mun Tae-gil

저렇게
저렇게
빈 가슴일 수가 있을까

허공
아래서
허공을 수놓다가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가는 소녀의 미소.

동강난
이 세파
한 물결 이루고자

캄캄한
밤하늘
동그랗게 수놓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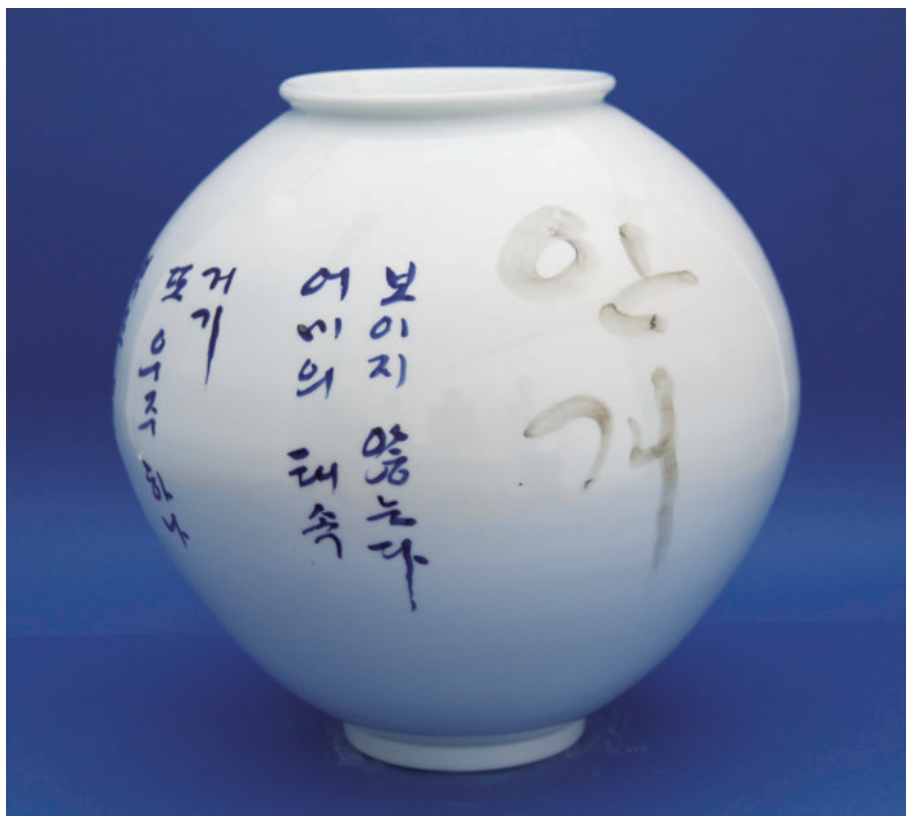
쫓는 해
박자에 맞춰
뚝 멈추는 저 눈물.



이슬 | 47×36cm

신상범

Sin Sang-beom



보이지 않는다

어미의 태속

거기

또 우주 하나

억조 물포말

안개되고

구름되어

등근 땅 등근 바다

해와 달과 별

치마폭에 담아

광활한 대지에

생명과 영혼의 씨

씨 뿌린다

안개 | 42x42cm

보이지 않는다
어미의 태속

거기
또 우주 하나

억조 물포말
안개되고
구름되어

등근 땅 등근 바다
해와 달과 별
치마폭에 담아

광활한 대지에
생명과 영혼의 씨
씨 뿌린다



안개 | 54x37cm

●
현 태 용

Hyun Tae-yong



소식적 | 54×37cm

어명! 밥 줘서
구들에 강 이불아래 보라
보리밥
또또하게 싹 나왔져

경허곡 살레에 보민
먹단 멜쳐 이실거여
우영팻티 강 송키 툃다당
쌍 먹으라

이추록도 살아신디
이글란인
잘먹으명서도 무사
죽어지켄들만 허염신고

어멍! 밥 줘서
구들에 강 이불아래 보라
보리밥
또또하게 싹 나뉘저

경허곡 살레에 보민
먹단 멜첫 이실거여
우영팻티 강 송키 툃다당
쌍 먹으라

이추룩도 살아신디
이글란인
잘먹으명서도 무사
죽어지켄들만 허염신고



소식적 | 40×42cm



한글 현병찬 휘호

君子好逑 | 32×32cm



한글 현병찬 휘호

和睦 | 32×3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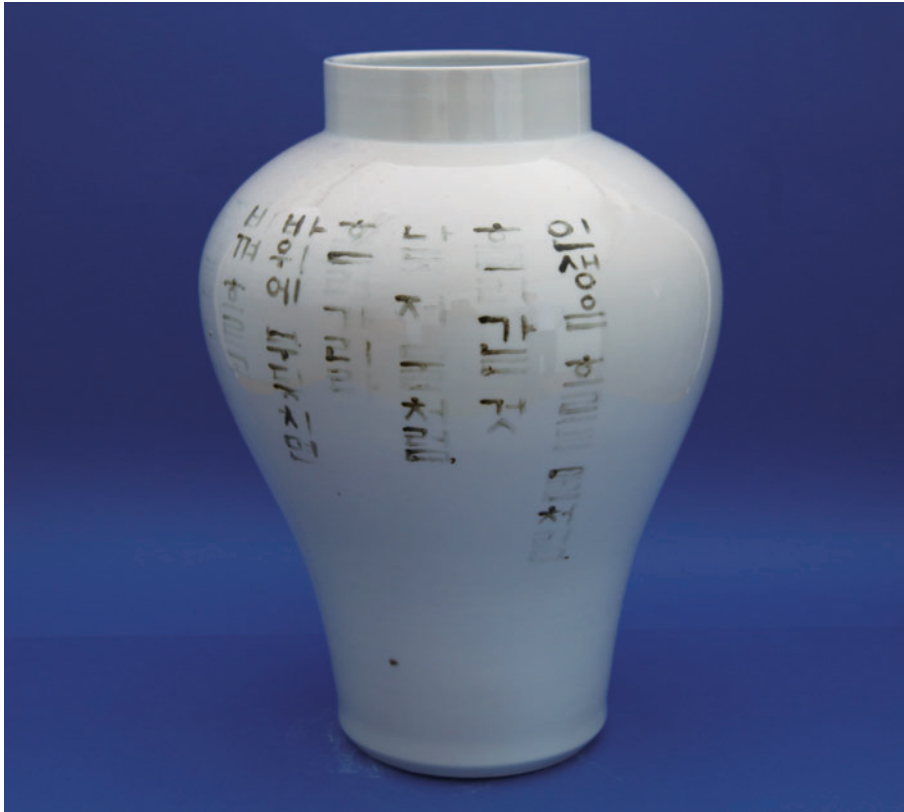
처음처럼 | 30×32cm

한글 헌병찬 휘호



한글 현병찬 휘호

春耕秋穫 | 42×42cm



한글 현병찬 휘호

인생은 흐르는 물처럼 | 48x35cm

한글 현병찬 휘호



春華秋實 | 42×42cm



한곳 현병찬 휘호

흑처럼 성실하게 | 47×36cm



한글 헌병찬 휘호

함께하는 마음 | 32×32cm



해주 엄기환 Eom gi-hwan

- 1959 수금도요 입문
- 1964 해강고려청자 연구소 故 해강 유근형 先生 사사
- 1969 군입대 육군 하사관학교 78기
- 1971 한국군 월남파병
- 1985 해주도에 연구소 설립
- 1989 19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경기도 지사)
- 1992 충북대 경영대학원 수료
- 1997 27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경기도 지사)
- 1998 28회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경기도 지사)
- 1998 28회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 1998 경기도 1지역 1명품 요장 선정
- 1998 韓, 日 도자기 교류전 (가고시마 400년 수교기념)
- 1999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위원
- 1999 태국 왕실초청전 (한국예술문화협회)
- 1999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기술학과 작품전 (6. 21 ~ 6. 27)
- 1999 현대미술대전대상 문화관광부 장관상
- 1999 경기도 LA 전시회 (10. 14 ~ 10. 19) 코스모스 백화점
- 2000 명지대 산업대학원 도자기기술학과 수료
- 2000 NHK 초청 韓, 日 합동가마 시현
- 2000 전통가마 개인전 (설봉호텔 6. 22 ~ 6. 26)
- 2000 국제 도예가초청 등요(장작가마) 불지피기
일본 아리따, 가고시마, 시가라끼, 중국 경덕진, 이스라엘
- 2001 한국다기 명품특별전 (국립 민속박물관 6. 19 ~ 7. 2)
- 2002 프랑스 도자전
- 2002 전통가마 개인전 (청주 백화점)
- 2002 캐나다 초청 도자전
- 2005 경기도으뜸이 선정
- 2006 개인전
- 2008 전통가마협회 전시회 (일본)
- 2009 국제도자 워크샵 참여
- 2010 한국차인연합회 대학원 수료
- 2010 전) 한국전통가마보존협회 이사장
- 2011 한국다도대학원 정사과정 수료
- 2011 한국베트남 전투 국가유공자
- 2012 이천시 문화상 (예술부문)



한글 현병찬 Hyun Byeong-chan

- 1960년 제주사범학교 졸업
- 1960년부터 2003년까지(44년간) 초등학교 교사, 교감, 장학사, 교장 봉직
- 1957년 소암 현중화 선생 사사
- 1980년 해정 박태준 선생 사사
- 2003년~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서예전시관 '먹글이 있는 집' 운영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심사 및 심사위원장 역임
- 대한민국 공무원미술대전, 세종한글서예대전, 경남미술대전, 대한민국한글서예대전 등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 역임
- (사)한국미술협회 한글서예분과 위원장 역임
- (사)세종한글서예큰뜻모임 이사장 (현재)
- (사)제주도한글서예사랑모임 이사장 (현재)
- (사)영주연묵회 이사장 (현재)
-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현재)
- 제주도서예문인화총연합회 대표회장 (현재)
-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수상 및 초대작가
- 원곡서예상 수상
- 덕산문화상 수상
- 훈민정음반포 562돌 한글사랑실천 표창
- 황조근정훈장



김 가 영 Kim Ga-yeong

-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연극영화학과 졸업
- 1992년 문예사조로 등단
- 한국문인대상
- 소원문학상 외 다수 수상
- 전 수필문학회 회장
- 작품집 : 『타인이라는 거울』, 『세월은 강물처럼』 외



김 봉 오 Kim Bong-o

- 1986 ~ 2007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 1990 ~ 1992 한양대학교 제주도 동문회장
- 1995 ~ 1997 연안김씨 제주도 종친회장
- 1998 ~ 2002 신촌초등학교 총동창회장 (10대, 11대)
- 1998 ~ 2002 한국불교 태고종 제주도 신도회장
- 2000 ~ 2003 조천중학교 총동창회장
- 2001 ~ 2002 국제라이온스 협회 354-G지구 중앙라이온스 클럽회장
- 2003 ~ 2005 오현고등학교 17대 총동창회 회장
- 2008 ~ 201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회장
- 2009 ~ 2013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단체협의회 위원
- 2009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2007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교육비전모니터링 위원장
- 2007 ~ 현재 제주한라대학교 법인이사
- 2008 ~ 현재 제주교도소 교정위원
- 2009 ~ 현재 세계평화의섬 범도민실천협의회 위원
- 2011 ~ 현재 제주문화원 부원장
- 2012 ~ 현재 제주향교 의전수석 관임장
- 2013 ~ 현재 21세기 제주유교문화발전연구원 원장
- 2013. 수필가 등단
- 1991. 2. THIXOTOROPIC Hysteresis Loop에 대한 연구
- 1999. 1. 「공중보건학」(식품위생) 외 다수



김 성 주 Kim Seong-ju

- 1996년 '자유문학'으로 등단
- 시집 : '비·바람의 길', '구멍'
- 시평과 시론 : 2001년 '문예연구' 평론(유성호)
2011년 '제주작가' 평론(장이지)
2014년 평론집 '시의 타자수용과 비평'(김병택) 등
- 2012년 詩 '흔적'이 설치 미술로 전시 (금천예술공장)
화가 (임흥순), 단편영화 '비념'에 삽입 (김민정)
- 현 제주작가회의 이사



김 순 이 Kim Sun-i

- 1989 ~ 1995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민속연구원
- 1995 ~ 1999 제주공항 문화재감정관
- 1999 ~ 2001 제주도지 편찬상임위원
- 2001 ~ 2014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 2013 ~ 제주문인협회장, 시인
- 1989 『제주옹기에 관한 조사보고서』 등 조사보고서 다수
- 1991 시집 『제주바다는 소리쳐 울 때 아름답다』 등 다수
- 2001 『제주여성문화』 등 공저 다수
- 2006 제주도예술상
- 2007 덕산문화상



문 태 길 Mun Tae-gil

-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 시조문학 천료
- 제주문인협회 회장
- 제주노후생활문화연구회 회장
- 시집 「마라도 등대」 외 5집



신 상 범 Sin Sang-beom

- 제주도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 (1975~1992)
-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제주지부장 (1981~1985)
- 제주도정책자문위원회 관광분과위원장 (1985~1990)
-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제23대, 제24대 제주지회장 (1987~1993)
- (사)한국자연보전협회 제주지부장 (1989~)
- 제주도문화진흥위원회 위원 (1992~1996)
- 제주도문화재위원회 문화재위원 (1992~2000)
- (사)탐라문화보존회 이사장 (1993~2000)
- 제민일보 논설위원 (1994~1997)
- 제주문화원 부원장 (1994~2010)
- (사)제주환경연구센터 이사장 (1995~2011)
- 제주타임즈 논설위원 (1995~)
- (사)제주화산연구소 이사장 (2005~)
- 제주문화원 원장 (2011. 2~)
- (사)제주환경연구센터 고문 (2011~)
- 제주중앙 언론인회장 (2014~)



현 태 용 Hyun Tae-yong

- KBS 제주방송총국 방송진행자 역임
- 제주법보, 한라불교 업무국장 역임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 세계평화의 섬 문화분과위원(간사) 역임
- 제주도 음악방송인 클럽회장 역임
- 2007년 「수필시대」 한국문단 등단
- 한국문인협회 회원
- 제주문인협회 회원
- 제주수필문학회 회원
- 제주동서문학회 회원
- 제주청하문학회 회원
- 제주문화원 사무국장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
- 수필집 《남기고 싶은 사연들》, 《노오란 비람이 부는 땅》 외
- 제주일보 《해연풍》, 제주불교 《정토의 아침》 집필자

이천 도자기의 역사

흙과 불, 그리고 장인의 예술혼이 어우러진 이천의 도자기. 한때 맥이 끊겼던 천년의 도자 역사를 재현한 이천의 도자기는 단순한 지역특산품이 아닌 이천사람들의 자부심, 그 자체이다. 이천문화원이 1987년부터 시작한 이천도자기축제는 세계인이 참여하는 큰 행사로 성장하였으며 이천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세계도자비엔날레는 우리 도자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 또한 도자기 조형 테마파크인 이천 세라피아(Cerapia)와 세라믹스 창조센터, 명품도자기가 즐비한 이천시립박물관과 해강도자미술관, 그리고 전국 유일의 도자기 특성화 학교인 한국도예고등학교 등 도예문화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도 탄탄하다. 무엇보다 총 453개 도예업체가 밀집한 신둔면 사음리와 수광리 일대의 사기막골 도예촌은 이천 도자기의 진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이천 도자기의 기원은 선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민무늬토기와 붉은 간토기편 등의 선사시대 유물, 설봉산성에서 발굴한 굽다리접시, 완(盥), 삼족기(三足器) 등의 백제토기. 그리고 함께 발굴된 통일신라의 토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조선 백자의 대표 산지였던 사옹원 분원(司饔院 分院)이 이천과 인접한 경기도 광주에 있어 백자와 함께 분청사기 제작이 활발하게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이천도호부의 특산품으로 백옥(白玉)과 도기(陶器)가 나오고, 16세기 중반 『동국여지』에도 도기가 이천의 특산물 중 하나로 나온다. 특히 옛 지명인 마장면 해월리의 ‘사기살’과 ‘점말’요지, 신둔면 수광리의 ‘점말’, 사음2동의 ‘사기막골’, ‘모가면 마국산 요지’ 등이 조선시대 이천의 도자기 생산을 뒷받침하는 유적들이다.

그러나 천년이 넘는 전통을 이어온 우리의 도자기는 1883년(고종 20년) 분원 관요가 폐지되며 큰 타격을 입었고, 민간용 도자기마저 일본문물과 함께 들어온 왜사기(倭沙器)에 밀려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하였다. 다행히 한국전쟁 이후 학계와 미술계를 중심으로 전통도예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 한국조형문화연구소(세칭 성북동 가마, 1955년 설립)와 한국미술품연구소(세칭 대방동 가마, 1956년 설립)가 설립되었지만 한국조형문화연구소는 1년, 한국미술품연구소도 고작 3년을 넘기지 못하고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다. 이로 인해 ‘한국 전통도예 부활’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한 도예인들도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 때 유근형 · 고명순 · 지순탁 · 김완배 등이 일할 곳을 찾아 이천의 수광리 칠기(漆器)가마로 내려오고 곧이어 윤석준 · 현무남 · 박수만 등

젊은 도공도 이천으로 들어온다. 이들이 이미 칠기가마에서 기능을 익힌 고영재 · 이정하 · 홍재표 등의 이천도공과 교류하며 비로소 이천 도예촌의 역사가 시작된다. 당시 최고의 숙련공인 이들은 칠기가마에서 조금씩 화분 · 술병 등의 분청사기를 선보이다가 1958년 처음으로 설립된 수금도요(水錦陶窯, 조소수에 의해 광주요光州窯로 바뀜)를 필두로 지순탁의 고려도요(高麗陶窯), 방철주의 동국요(東國窯) 그리고 유근형의 해강고려청자연구소(海剛高麗靑磁研究所)등에서 전통도자기 재현을 위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천 수광리 지역은 화목의 원료인 소나무 구하기가 편하고, 도자기의 원료인 점토와 사토 등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도자기 제작을 위한 입지조건이 좋았다. 재미있는 사실은 1965년 한일협정을 계기로 한국 도자기를 구입하려는 일본인에 의해 이천 도예촌이 사상 유래가 없는 호황을 맞이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역사의 아이러니를 목격하곤 하는데 우리 도예의 맥을 끊을 뻔한 일본인에 의해 이천 도예촌이 빠르게 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오늘날 이천은 세계적인 도자기의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지난 2010년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공예 부문)’에 가입하여 전 세계 22개국 41개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였고, 도자클러스터사업과 이천도자예술촌 조성, 도자랜드마크 사업, 도자체험 · 유통센터 건립, 국제적 도자아트페어 개최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선사시대부터 시작된 이천의 도자기의 역사는 이제 이천 도자기를 사랑하는 이천사람들의 노력을 발판으로 더욱 원대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천문화원장 조 명 호

조명호 / 이천군청 근무(1970~1980) / 이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1988~1998) / 이천문화원 부원장 및 이사(1989~2011) / 이천로타리클럽 회장(전) / 대한적십자 이천지구 협의회장(전) / 이천YMCA 이사(전) / 이천시의회 2대 · 3대 의원(전) / 이천시 윈드오케스트라 단장(전) / 다산고등학교 이사(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조정위원(현) / 이천문화원 제13대 문화원장(현) / 이천오층석탑환수위원회 상임위원장(현)

제 1 회

이천도예와 제주예술의 만남展

2014. 9. 26^{FRI} ~ 10. 1^{WED}

제주해변공연장 전시실

발 행 일 : 2014년 9월

발 행 인 : 신상범(제주문화원장)

발 행 처 : 제주문화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 제주해변공연장 2층

T. 064-722-0203 F. 064-722-0344

jejucc,kccf.or.kr

인 쇄 : 오름출판 (T. 064-744-5431)

이 책에 담긴 내용은 무단으로 복사, 전재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필요로 할 때는 반드시 발행인과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합니다.

